

조달청, '해양수도' 부산에서 혁신제품 기업과 현장 소통

- 부산지역 혁신제품 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조달정책 개선방안 논의
-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해 생산현장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부산청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 나누며 조직문화 혁신과 실행력 결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8일 남부권 경제의 중심지이자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을 찾아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2026년 조달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이날 오후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술력을 갖춘 부산지역 대표 우수 및 혁신기업 10개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공조달 개혁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및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대를 위한 시범구매 사업 확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후속 절차 간소화 등 경제회복을 위한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2026년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며 “넓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과감히 걷어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공공조달이 기업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로 안전을 켜다... 혁신기업·MZ 직원과 소통

간담회 직후 백 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기업인 ㈜덕성해양개발을 방문해 혁신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덕성해양개발은 해양안전장비 전문기업으로,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를 자체 개발·제조하는 해양 조명 제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유망 중소 기업이다.

현장을 둘러본 백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조달 정책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이자 이정표”라며,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현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청장은 부산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일선에서 조달 행정을 수행하는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과 세대간 공감을 당부하고, “직원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조달청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엽	(051-330-6510)
		담당자	주무관	김대원	(051-330-6520)